

“노인문화 창출·인력개발에 최선”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올 한 해, 노인복지사업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는 오랫동안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서울 노인복지의 중심도 종로에 있다. 그곳은 바로 조계사가 운영·지원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임문다. 노인문화의 대표 장소로 손꼽히는 탑골공원 인근에 있는데다 접근성이 좋아 복지계에서는 서울노인문화의 바로미터로 통하고 있다. 이는 이곳 하루 이용 노인수가 2000명이 넘는다는 통계자료만 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2월 26일 2008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노인복지사업을 가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과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준비한 사업계획 중 특히 ‘뭔가 보여줄 것’ 같은 사업은 문화복지와 인력개발이다.

노인문화 창출-문화프로그램

서울노인복지센터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노인문화창출이다. 사회적으로 ‘노인문화’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지만 노인문화가 제대로 성립돼야 노인들의 터전도 마련된다. 그런 노인문화를 노인의 시각에서 전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올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바로 이 점을 착안해 노인들이 직접 미디어의 생산자로 나서서 프로그램 ‘1terView(인터뷰)’를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

서울노인복지센터 2008년 운영계획 발표 미디어교육 실시·취업훈련센터 운영 등

인미디어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노인에게 3-8월 전문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문화를 직접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가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노인미디어전문가 및 지역사회노인들의 작품을 접수, 영화제도 개최한다. 영화제에서는 노인들이 직접 기획·촬영·편집한 영화를 10여 편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 준비된 미디어 프로그램은 ‘실버기자아카데미’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4-6월 기자아카데미를 열어 지적 욕구가 높은 노인들이 사회문화 이슈를 공유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노인들이 가진 경험과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노인 En-클린’도 눈에 띈다. 쉽게 말하자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환경운동을 통해 펼쳐는 것이다. 3-11월 시행될 이 프로그램에서는 빈그릇운동, 환경캠프, 자원봉사학교 등을 시행, 노인이 실천가 역할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인력개발사업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또 하나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노인인력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4년 고령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노

인취업훈련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노인인력개발은 자기개발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취업준비별 근무여건을 미리 숙지시켜 재취업 근무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까지 역할극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이다. 고령재취업자의 현장적응 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다.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다. 노인의 경륜을 적극 활용해 노인을 설문조사원으로 양성, 전문적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달리서치’는 올 3월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에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고졸이하 학력 노인들을 설문조사원으로 활용하며 개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노인취업훈련센터 송화진 과장은 “어르신들의 경우 업무 속도는 느리지만 경험이 많아 면접조사 등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에서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며 어르신들이 가진 다양한 재취업 능력을 강조했다.

건강이 최고-건강지원사업

노인에게 특히 많은 질병인 당뇨·중풍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행진’ 사업도 눈에 띈다. 당뇨나 중풍은 생활습관 개선, 식이요법 등의 꾸준한 관리

가 필요하다. 이러한 질병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노인 자조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올 3월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노인들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효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4월 12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등축제를 진행, 어버이날과 경로효전의 의미를 살려 나눔과 효를 함께 실천할 계획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임문 다는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항상 고민한다”면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어르신들의 욕구도 만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아무나 이용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구미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가입 자격이 까다로운 것은 아닐까.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서울·경기권 거주 노인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관심있는 프로그램은 신청할 수 있을 때 바로바로 회원 가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seoulnoin.or.kr (02)739-9501



골수기증·환우돕기 등을 통해 생명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대사회적으로 알리고 있는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임문). 오늘날 불자들의 생명나눔 원력이 여기까지 온 데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컸겠지만 이곳에서 맡았어 봉사해온 이들의 노고도 대단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손강자(66·사진)씨의 열성은 그 누구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봉사 덕에 활력 넘쳐요”

“에이,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처음 손씨를 만나자 부끄럽다고 손사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장기급 캠페인이나 기타 행사를 열 때마다 볼 수 있었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언제나 활기차고 당당하던 손씨였지만 인터뷰만큼은 속스럽다며 웃는다.

그는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정기적으로는 소식지 발송 작업을, 부정기적으로는 캠페인 동참을 계속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한 활동이니 이제 10년이 다되어 간다. 또한 일주일에 2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안내데스크 봉사자로도 일하고 있다. 모두 그의 상냥한 말씨와 잘 어울리는 봉사다.

손씨가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는 위기 의식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한다. 이른 나이에 가정을 이뤘 주부로 바쁘게 달려왔던 그였다.

10년째 생명나눔 소식지 발송 “장기기증 동참은 불자다운 삶”

손씨가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는 위기 의식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한다. 이른 나이에 가정을 이뤘 주부로 바쁘게 달려왔던 그였다.

그러던 어느 날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다. ‘광명요양원’에서 봉사자를 구한다는 전단지였다.

“보자마자 무자정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할머니들처럼 노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적성에 맞구나 싶었죠.”

손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얻은 것이 오히려 너무 많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봉사



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활발한 성격이 되살려 졌기 때문이다. 봉사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활력을 얻어 가고 있는 요즘,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절로 피어난다.

시작은 요양원이었지만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에게 ‘봉사의 고향’ 역할을 하는 곳이다. 우선 그 뜻에 동의하고 있

어서다. 죽어서 없어질 몸을 내 놓는 정신이야말로 불자다운 생각이라는 점

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열성적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재밌는 경험도 참 많았어요. 지금이야 ‘장기기증’이 사회적으로 흔한 말이 됐지만 5-6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끔직하다며 피해 다녔죠.”

요즘 그는 ‘조금만 더 짧다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봉사에 자꾸 욕심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사처를 한 군데 더 늘리기 위해 노숙인 시설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배움은 이웃이 그저 밥 한술이나 제마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부끄럽지 않은 봉사자로 남고 싶어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요. 봉사는 열심히, 성심껏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노인이 문화의 주역이 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도 다양한 문화·인력개발·건강지원 사업으로 노인 문화창출에 힘을 예정이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Hypnosis Career College) 학술교류 협정

제33기 최면 「전생·빙의 특별 워크숍」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개강안내 3월 13일 10:00~17:00까지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과정별 교재 및 수련테일 제공
▶수련비: 200만원
▶특전: 전생상당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초충교육 실시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박사 직강
미국 최면의과대학 개인교수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형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균점쟁이로.....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급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충강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현재 접수중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www.hypnos114.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
전화: (042) 255-0734-5